

# 영암군 '사료비 절감 평가' 최우수상

영암군이 최근 농촌진흥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료비 절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의 사료비 절감 수상 비결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달 빠른 축산 농가 대책=영암군은 민선 4기 들어 미국산 쇠고기 개방 등에 대비, 한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다. 특히 수입 사료비의 꾸준한 인상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 사료인 청보리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 청보리·옥수수 등 사료 주원료 재배 늘려 2010년부터 연간 160억원 절감 효과 기대

늦가을에 파종했다가 다음해 모내기 전에 거둬들이는 청보리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고품질 유기농사료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군은 일단 지난 2006년 135ha에 불과하던 청보리 재배면적을 2007년 305ha, 2008년에는 740ha로 3년 만에 5.5배로 늘렸다.

이를 위해 110t의 청보리 종자를 농가에 무상공급했고,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 1천ha에 뿌릴 수 있는 청보리 종자를 보급했다.

▲한우 사료 자급자족 선언=군은 올 초 2010년까지 한우 사료 자급자족을 선언했다. 2010년까지 청보리 재배면적을 2천500ha까지 확대하고 배합사료 주원료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영암군 구서면 도갑리에 27억 5천만 원의 투자로 7천421㎡ 규모의 TMR(조사료 가공사료)공장을 건립 중이다.

이 공장이 완료되면 하루 150t의 사료를 생산해 전체 소 사육농가에

공급되며, 남은 분량은 인근 시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연간 160억 원 사료비 절감 효과=한우사료 자급자족이 현실화되면 각 한우 사육 농가마다 연간 40%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영암지역 1천133 한우 사육농가(사육두수 3만 3천여두)의 연간 사료 값 396억 원 중 50여억 원이 절감됐으며, 2010년부터는 연간 160억 원 이상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축산 농가들이 소득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박진기기자 lucky@

## 12개 중·고에 20억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박차

학습 공간을 조성해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조성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보육 교실 운영을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5억원의 영어 초·중·고등학교 영어 경시대회, 영어캠프, 영어 원어민 강사 초빙 교육,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영어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함평=박진기기자 py4079@

## 함평군 인재육성 나섰다

함평군이 교육개선 사업으로 인재육성 나섰다.

함평군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육성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교육비 절감 등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최근 학력증진사업 2억9천여만 원을 비롯해 교육여건 개선사업 1억1천만 원, 학교 특성화 및 1군1우수교 사업비 1억원 등 총 5억원의 교육환경 발전지원 사업비를 관내 초·고등학교 12개소에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월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데 이어 9월에는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 학교의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계획의 충실성, 적시성, 학교 측의 열정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는 보충업 1억1천만 원, 학교 특성화 및 1군1우수교 사업비 1억원 등 총 5억원의 교육환경 발전지원 사업비를 관내 초·고등학교 12개소에 집중 지원한다.

특히 군은 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

## 광산, 어등산 일대 한말 의병 전적비 정비

광산구 어등산 일대 한말 의병 전적비가 정비됐다.

광산구는 14일 김태일 의병장을 비롯 한말 의병들이 장렬한 최후를 맞은 곳으로 추정되는 어등산 마당바

위 인근의 토굴과 석굴에 각 1개씩 한말 의병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어등산 의병 전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고~석굴, 마당바위~중봉 구간의

등산로를 개설했으며 등산로에는 방향표지판 3개와 휴식의자 12개도 설치됐다.

한편 안내관이 설치된 토굴과 석굴은 지난 7월 발견됐으며 한말 의병 연구회형제 교수(순천대 사학과) 등에 의해 의병부대와 일본 군경이 충돌의 결전을 펼친 곳으로 확인된 바 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 "7월분 의정비 반납"

나주시의회, 3천80만원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7월분 의정비를 반납했다. 나주시의회는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 40여 일간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7월분 의정비 3천8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나주시에 기탁했다.

무소속 의원 5명이 지난 8월 1천400만 원을 반납, 불우시설 등에 이미 기탁했고,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과정 당시 이행할 의사에 서명, 시민단체와 양측의 약속에 따라 1천680만원을 반납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만연재 아름다운 숲' 조성

화순 만연재 주변에 아름다운 도시 숲이 조성됐다. 화순군은 3억6천여만 원을 들여 1km의 산책로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아생화 344 그루를 심었다. 또 잔디광장 5천㎡와 육각정자 1동, 전망대 5개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화순 만연재 주변에 아름다운 도시 숲이 조성됐다. 화순군은 3억6천여만 원을 들여 1km의 산책로를 개설하고 소나무와 아생화 344 그루를 심었다. 또 잔디광장 5천㎡와 육각정자 1동, 전망대 5개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정부 지원 받는데 지위고하가 무슨 필요"

정기호 영광군수, 중앙부처 실무진에 브리핑 논길

"지역 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는데 지위고하가 문젠가요"

정기호 영광군수가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앙 부처 실무자들을 찾아 다니며 '순회 브리핑'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 군수는 굴비위생가공시설 사

업 등 내년에 추진할 11개 지역 현안사업(228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을 찾았다.

정 군수는 지자체장들이 오래 격식을 갖추기 마련인 장·차관

및 국장급의 환담 대신 과정급 이하 실무자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현안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앙 부처 실무자들은 "지자체장이 직접 실무 사무관을 방문해 브리핑한 것은 이례적이라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군수가 부처 실무자들에게 지역 특산물이 '모스일 송편'을 나누주는 과정에서 수천 20박스를 현상 주문받기도 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Table with 4 columns: Auction No., Lot No., Area, and Price.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Includes sub-sections for 'Auction' and 'Land/Air Rights'.

Table with 4 columns: Auction No., Lot No., Area, and Price.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Includes sub-sections for 'Auction' and 'Land/Air Rights'.

Table with 4 columns: Auction No., Lot No., Area, and Price.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Includes sub-sections for 'Auction' and 'Land/Air Rights'.